

HEADLINE NEWS

‘정책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해 사업 진행상황 파악심사 (볼티모어)

미국 볼티모어시는 최근 시민들의 불편 및 불만사항을 비롯, 파손된 가로등 수리에서부터 도로관리, 예산낭비, 공무원의 근무태만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의 도시문제에 대한市の 대책 및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Citi-Stat Program」을 개발, 시행함으로써 시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과거에는 1년에 한 번 예산을 심의할 때 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수행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두 번씩 市長 이하 모든 간부가 참석, 「Citi-Stat 프로그램」을 통해 시 사업의 분야별 진행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보면서 각 사업에 대한 진도 심사와 사업담당 책임자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시는 28만5천 달러를 들여 개발한 「Citi-Stat Program」 시행 이후 시 공무원의 책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며, 불필요한 초과근무 및 병가(病暇)가 감소되어 적어도 1천3백만 달러가 절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The New York Times, 6. 10)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수도권 광역통합전략을 담은 「메갈로폴리스 구상 발표 (동경)
- ② 「낙서방지조례」 제정 추진 (나리縣)
- ③ 농지감소 막기 위한 입법화 추진 (플로리다)

도시환경

- ④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 시판 (시모노세키)
- ⑤ 대장균 발견된 공원모래를 항균모래로 교체 일본 : 우츠노미야市)
- ⑥ 수질오염방지 위해 하천·호수 낚시관리조례 제정 (북해도)

도시교통

- ⑦ 통학로 안전개선 프로그램 추진 (캘리포니아)
- ⑧ 초등학교 대상 「교통안전퀴즈대회」 개최 (맨체스터)
- ⑨ 「511」 교통정보서비스 전국 확대시행 추진 (신시내티)
- ⑩ 고장·사고차량 긴급처리 위한 특수차량 운행 미국 : 디모인市)
- ⑪ 대중교통 이용증진 위해 「스마트카드」 도입 (메릴랜드州)

행재정

- ⑫ 시정홍보책자 모든 가구에 발송 (런던)

사회복지

- ⑬ 공원·광장에서 무료연주회 개최 (파리)
- ⑭ 「가정폭력 핫라인」 중국 최초로 개설 (중국: 陝西省)
- ⑮ 노인이 노인을 돕는 ‘노인자원봉사자’ 조직 구축 (뉴욕)

① 수도권 광역통합전략을 담은 「메갈로폴리스 구상」 발표 (동경)

東京都 도시계획국은 지난 4월 16일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수도권 메갈로폴리스 구상」을 발표했다. 7개 都縣市(東京都, 사이타마·치바·카나가와縣, 요코하마·가와사키·치바市)로 구성되어 3천3백만 명의 인구가 집중해 있는 東京 수도권은 버블 휴유증으로 인한 경제침체와 환경 악화, 범죄 및 재해위험의 증대 등의 문제와 함께 ‘首都 기능의 이전’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구상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매력적인 首都의 재생을 목표로, 광역차원의 제휴를 통해 東京 수도권의 ‘環狀 메갈로폴리스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구상은 교통인프라(교통망, 공항, 물류), 방재 및 중추관리기능, 환경(수질, 대기, 폐기물처리), 정보네트워크(교육, 산업, 행정) 등 13개 분야에 걸쳐 수도권 광역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都는 이번 구상에 따라 2015년 3개의 수도권 環狀도로가 개통되면, 연간 1조 7천억 엔의 시간단축효과와 함께, 주행속도 향상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저감, 環狀 도시축의 강화를 통한 도심부의 환경부하 경감 및 통과교통량의 감소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토지이용과 교통의 통합모델을 통해 5년마다 수도권의 도시활동 변화를 현실과 유사하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www.metro.tokyo.jp/INET/KEIKAKU/SHOUSAI/70B4G101.HTM)

(日本經濟新聞, 4. 13)

② 「낙서방지조례」 제정 추진 (나라縣)

일본 古都인 나라(奈良)현의 중심가에 스프레이를 이용한 낙서 피해가 계속 발생하자, 縣 의회는 「낙서방지조례안(案)」을 만들어 의회 정기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만일 이 안(案)이 가결되면 낙서피해와 관련한 조례 제정은 일본에서는 처음이다. 지난 2월부터 유명사찰 및 공원이 밀집해 있는 중심가를 비롯해 나라驛 주변이나 상점가 등에서 낙서 피해가 증가해왔다. 縣 의회는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관광도시 나라」 이미지에 큰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www.netlaw.co.kr, 6. 14)

③ 농지감소 막기 위한 입법화 추진 (플로리다)

미국의 플로리다주는 매년 18만 에이커의 농지가 주택이나 업무용 부지로 개발됨에 따라, 무분별한 도시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목장주나 산림 소유주들이 개발업자들에게 토지를 넘기지 않고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주 정부는 농부에게 지가의 일정비율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연간 1억 달러 한도의 채권을 팔 수 있으며, 채권보유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주택 매매시 부과하는 세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 이 때 주 정부는 토지의 개발권만을 가지게 되며, 州知事나 州 의회가 승인한 용도 이외의 개발은 불가능하다.

농부는 2가지 선택권을 가지는데,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프로그램에 가입하거나, 자신의 자식 등이 프로그램 연장에 대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30년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30년 후 토지를 팔 경우에도, 주 정부가 선매권을 가지게 된다. 이 법안은 현재 농부나 환경운동가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

(www.jacksonville.com/tu-online.stories/040501/met_5834055.html)

④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 시판 (시모노세키)

일본 야마구치(山口)현 시모노세키(下關)시 수도국은 5월 28일부터 高尾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가열살균한 후 페트병에 담아 「아 關露水」라는 브랜드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판매가는 0.5/들이 1병에 100엔이다. 市는 또한 이 수돗물을 재해시를 대비한 비축수로 하거나, 수도사업의 PR용으로 활용키로 했다. 일반적으로 정수장에서는 여과 후 염소살균 처리해 급수(給水)하지만, 「關露水」는 135℃에서 1초간 가열살균한 것으로, 15~20℃의 냉암소에서 1년간 보존할 수 있다.

(아사히신문, 5. 29)

5 대장균 발견된 공원모래를 항균모래로 교체 (일본 : 우츠노미야市)

일본 우츠노미야(宇都宮)시는 관내 526곳의 공원 모래에서 대장균이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市가 직영하는 공원의 모래를 항균모래로 바꿀 계획이다. 市는 특히, 맨발로 걷는 공원에는 화성암의 일종인 항균모래를 깔 방침이다. 市는 대장균이 검출되는 주된 이유로, 공원 모래밭이 개나 고양이의 ‘화장실’로 애용(?)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아사히신문, 6. 4)

6 수질오염방지 위해 「하천·호수 낚시관리조례」 제정 (북해도)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지방은 낚시꾼의 급증이 하천이나 호수의 수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홋카이도 낚시지침」을 4월에 제정했다. 이 지침은 면허요금을 지불해야 낚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허가대상구역의 지정 및 낚시 규칙의 개발, 하천·호수를 대상으로 한 라이선스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라 개인은 연간 수천~1만 엔, 업자는 4~5만 엔을 면허요금으로 내고 낚시 허가증을 받게 된다.

(www.hokkaido-np.co.jp/News)

7 통학로 안전개선 프로그램 추진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州는 미국 전체 50개州 중 어린이보행 사고율이 전체의 12위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州 교통당국은 '99년에 통학로의 안전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조례로 제정했으며, 이 조례에 따라 매년 2천만 달러의 자금을 투입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지원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횡단보도 신설, 보행자를 위한 통로 개설, 자전거 통행로 설치, 보도 신설, 자동차 통행속도를 줄여야 하는 ‘교통진정지구(traffic calming program)’ 지정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www.transact.org/Ca/saferoutes_bill.htm)

8] 초등학생 대상 「교통안전퀴즈대회」 개최 (맨체스터)

영국의 맨체스터市 도로안전팀은 7~11세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퀴즈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 퀴즈대회에는 교통법규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금년도 대회는 70여 개 학교에서 약 1만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지난 6월 市 청사에서 학교대항 최종결승전이 벌어졌다. 市는 이러한 퀴즈대회가 교통안전에 대한 어린이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www.manchester.gov.uk/news/images/june01/road.htm)

9] 「511」 교통정보서비스 전국 확대시행 추진 (신시내티)

미국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최근 전화를 통해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511 서비스」를 켄터키州 북부와 신시내티(Cincinnati)市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등, 이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교통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511 서비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 ITS 사업을 통해 얻어진 교통정보를 일반인들에게 전화를 통해 직접 제공할 수 있어 교통투자사업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본지 제13호 「511 전화번호 첨단교통정보제공에 배정」 기사 참조)

지난해 7월 연방통신위원회(FCC)는 「511」 전화번호를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전화번호로 지정키로 결정한 바 있다. 그 이후 연방통신위원회는 州 정부 및 지방정부의 교통행정 그리고 통신 및 법률 관련자들에게 이 서비스의 실용화를 위해 적절한 프로그램을 수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교통부 ITS Joint Program Office는 미국 전역에 걸친 실행에 앞서 그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애리조나州를 대상으로 「511 서비스」 사례 연구를 수행하고, 최근 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여행자정보 전화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번호는 300개 이상이며, 이는 계속 증가 추세이다. 따라서, 교통부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3자리 전화번호의 교통정보제공 서비스는 여행자가 언제 어디를 여행하든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ww.itsa.org) (www.its.dot.gov/511/511.htm)

고장·사고차량 긴급처리 위한 특수차량 운행 (미국 : 디모인市)

미국 아이오와州 교통부는 디모인(Des Moines)시 인근의 고속도로에서 고장 차량 등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Highway Helper Program」을 시행한다고 지난 1월 발표했다. 타이어, 가스, 부동액, 오일 등을 갖춘 2대의 특수차량이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 일대를 주행하면서 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경찰과 공조하는 방안도 강구 중에 있다.

(www.dmampo.org/news.html)

대중교통 이용증진 위해 「스마트카드」 도입 (메릴랜드州)

미국 메릴랜드州는 2003년부터 통근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카드」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워싱턴 대도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카드 기술을 이용해 단일요금을 징수함으로써 메릴랜드, 콜롬비아, 버지니아 북부를 포함하는 대도시지역의 대중교통시스템을 상호 연결할 계획이다.

州 교통관리국은 스마트카드 도입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증진하고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 대중교통 이용자 수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증진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州 교통당국은 2002년부터 스마트카드 시스템의 설치를 시작, 2003년 봄부터 카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스마트카드 시스템을 워싱턴 대도시권 교통당국(Washington Metropolitan Area Transit Authority)이 운영하는 모든 대중교통시설과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www.sunspot.net/news/local/bal-md.smart19apr19.story?coll=bal%2Dlocal%2Dheadlines)

시정홍보책자 모든 가구에 발송 (런던)

영국 런던시는 최근 시 정부가 시민들을 위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모든 가구에 시정안내책자와 뉴스레터를 발송기로 발표했다. 「시가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이 안내책자는 교통체계 개선, 안전한 도시 만들기, 소방대책 강화, 도시경제개발 등의 주요시책과 각 부서 및 기관들의 정책목표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뉴스레터는 지난 한 해 시가 추진한 업무실적을 담고 있다. 이 시정홍보계획은 시 정부, 런던개발공사, 소방방재본부, 시경(市警), 교통기획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시정홍보책자를 앞으로 6주 내에 275만 가구에 빠짐없이 배포할 예정이다.

(www.london.gov.uk/news/2001/232-1206.htm)

공원·광장에서 무료연주회 개최 (파리)

프랑스 파리시는 '정원에서의 음악(Musique côté jardin)'이라는 주제로 지난 5월부터 무료연주회를 시 소유 공원과 광장에서 개최하고 있다. 오는 9월까지 총 250회 정도 개최될 이 무료연주회는 주로 주말 오후에 개최되며, 5월에 50여 회, 6월에 100여 회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연주일정은 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각 구청에서 얻을 수 있으며, 7월에서 9월까지의 프로그램은 6월 말 공고되었다. 특히, 1982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프랑스 음악축제(Fête de la Musique)' 개막일인 6월 21일에는 여름축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무료연주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www.paris-france.org/parisweb/FR/VIVRE/CONCERTS_JARDINS/MUSIQUE_JARDINS.htm)

(www.paris-france.org/parisweb/FR/VIVRE/FETEMUSIQUE01/feteMusique.htm)

㉞ ‘가정폭력 핫라인’ 중국 최초로 개설 (중국 : 陝西省)

중국 陝西省 부녀연합회는 최근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가정폭력 핫라인’을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핫라인은 여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폭력에 처하거나 처할 위기에 있는 여성의 대처능력 향상과 가정 내 폭력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이 핫라인의 주요 역할로는, ① 전화 상담을 통해 관련정보를 제공하거나 긴급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② 학대를 받고 있는 여성의 상황을 분석해 문제점을 찾아내는 동시에, 상담을 받는 여성의 잠재능력을 발굴하거나 가정 내 폭력에 대한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③ 그룹활동을 통해 학대를 받은 여성의 자신감을 회복시킴으로써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등이 있다.

(人民日報, 5. 11)

㉞ 노인이 노인을 돕는 ‘노인자원봉사자’ 조직 구축 (뉴욕)

미국 뉴욕시에 위치하면서 노인들을 위해 다양한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의료보험회사인 Elderplan은 회원 중에서 건강한 노인들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해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돕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인자원봉사자’들은 몸이 불편한 노인들의 가정을 방문, 쇼핑, 전구 갈기, 커튼 달기 등과 같은 간단한 가사를 돕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이러한 활동에 대한 대가로 Elderplan으로부터 서비스포인트를 받게 되며, 이 점수는 나중에 돈으로 환산되어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lderplan이 이러한 노인봉사조직을 만든 이유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강한 노인들이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몸이 불편한 노인들도 독립해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Elderplan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요양원에 입소하는 시기가 평균 2년 정도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The New York Times, 4. 30)